

개혁교회의 정체성 안내

개혁교회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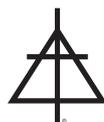


Christian
Reformed
Church

개혁교회의 정체성 안내

개혁교회는 무엇인가?

crcna.org



Christian
Reformed
Church

© 2016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1700 28th Street SE
Grand Rapids, Michigan 49508-1407 U.S.A.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learn more about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visit us at crcna.org.

머리말

개혁교회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너무 뻔해서 굳이 묻지 않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개혁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개혁교회 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소책자가 위의 질문에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관점에서뿐 아니라 이 시대에 개혁교회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해 줄 것입니다. 개혁주의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개혁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할까요?

간단한 대답은 “매우 중요하다”입니다. 그 이유는 개혁주의가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직업이나 내가 평소 사는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가 등 우리가 가진 중요한 질문에 선명하고 강력한 대답을 개혁주의 신학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개혁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각각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동시에 한 교회로 사는 여정*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책자를 북미주 개혁교회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초청장, 혹은 예비과정으로 여겨 주십시오. 개혁교회 성도로 산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홀로 걸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북미주 개혁교회

2021년 8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RC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crcna.org/welcome)

목차

들어가는 말	6
개혁교회의 특성.....	7
개혁교회의 계보.....	9
개혁주의의 세 가지 접근 방법.....	11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교리주의자의 관점.....	12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경건주의자의 관점	19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가? 변혁주의자의 관점.....	26
맺음말	32

들어가는 말

이 책은 “개혁신교회 교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씌어졌다. 북미주 개혁신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CRC)를 포함한 북미주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의아해하거나, 심지어는 이런 질문이 가치가 있는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오늘날 북미주 기독교는 신자의 연합은 강조하지만, 신자를 구별하는 것은 탐탁치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물론 기독교인이 갖는 공통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CRC는 다른 기독교인과의 연합보다는, 다른 신자들과 자신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구별하는데 종종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으며

(요한 17:27), 바울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사실을 매우 중시한다.

(고전 12:12, 엡 4:4-6). 바울의 말한 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라는 위대한 사명보다 더 훌륭한 사명선언문과 비전선언문이 필요한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을 연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게다가, 오늘날 교회의 대적은 루터교인, 감리교인, 또는 순복음교인 등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신자를 위협하는 세속주의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같은 믿음과 삶으로 맞서야 한다. 이미 CRC는 여러 방법으로 다른 기독교인과 손을 맞잡아 왔다. 지역 교회는 종종 음식 배급소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다른 교회와 함께 동역 해왔으며, 교단내 기관들은 전세계적으로 자주 다른 교회나 종교단체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개혁신교회의 정체성을 다루면서도 이러한 정황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개혁교회의 특성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할 때 ‘액센트’(accent)가 있다. 즉 신학적인 강조점을 가지고 말을 한다. 실제로 “액센트”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뉴올리언스, 헬리팩스, 브루클린, 그리고 위니펙 사람들에게 어떤 단어를 말하게 해본다고 하자. 같은 발음을 낼 수 있을 리가 없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언어는 그 본질상 지역에 따라 발전하기 때문이다.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표현하는 특정한 방법을 발전시키며, “문화”는 공동의 경험, 의미, 그리고 삶의 방법 등을 포함한 이러한 특성들이 쌓인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각 공동체의 개성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존재하는 놀라운 다양성의 단면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함께 일하고 예배드리는 동안 각각 특별하게 말하는 방법을 발전시킨다. 따라서 순전하고 신학적으로 중립적인 기독교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통의 믿음과 삶의 경험을 공유한 특정한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을 개발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차이점이 서로의 마찰과 소외를 가져온다면 그때는 건전한 차이점이 결국 최악된 분열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각각 독특한 신학적인 액센트를 가지고 말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매우 성경적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몸으로서의 교회의 이미지는 교회의 단일성(한 몸)과 다양성(손, 발, 눈)을 동시에 강조한다. 이 위대한 본문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즉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는 깊은 일체감과 함께 풍성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심오한 성경의 가르침 중 하나는 ‘하나와 여럿’의 진리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자신도 하나이면서 셋이신 것을 보라.

그러므로 개혁교회의 신자 또는 다른 그룹의 기독교인이 그 자신의 신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은 그 자체가 최악된 것이나 분열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기 이해는 몸 중에서 손이나 발 또는 눈을 강화시킴으로써 세상을 향해 연합된 몸 전체를 강화시킨다.

때때로 사람들은 일부 소수의 사람이 자기 식으로 강조해서 말한 것을 가지고 개혁주의나 엄밀한 개혁주의로 잘못 소개하고, 또는 개혁교회는 전세계 기독교회와는 연관이 별로 없는 것같이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개혁주의의 강조점은 북미주 개혁교회나 특별한 개혁교회의 역사보다 훨씬 넓다. 개혁주의는 헝가리, 한국, 인도네시아, 스코틀랜드,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성하고 있으며, 개혁교회의 신앙고백들 중 하나에 불과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전세계

3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더욱이 CRC 자체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서, 일요일에 북미주의 CRC 교회는 적어도 14개의 다른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뿐 아니라, 개혁주의 기독교는 전세계의 교회와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개혁주의 기독교는 신약시대의 교회로부터 시작된 더 폭 넓은 기독교 전통주의에 단단히 뿌리를 박고 있다. 개혁주의 신자들은 모든 다른 신자들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과, 그 중 제 2위께서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하셨음과, 제 3위께서 성령으로 교회에 내주하심을 믿는 신앙을 공유한다. 개혁교회 신자들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사명, 그리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실 것을 인정한다. 개혁교회 신자들은 온세계의 교회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그들의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다.

이 책은 개혁주의 전통의 특정한 강조점 일부를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많은 인종, 교단, 및 세대를 초월하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개혁주의 관점의 표현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개혁주의 관점은 개혁교회가 연합하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도와 줄 것이다.

개혁주의의 계보

개혁주의 전통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은 폭 넓은 교회의 계보에서 개혁교회의 위치를 찾는 것이다. 아래의 간단한 표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회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보여준다.

		주요 기독교 교회	
1~11세기		기독교 교회	
11세기		서방 가톨릭	동방 정교회
16세기	개신교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비고: 아래에서 왼쪽에 가까울수록 로마 가톨릭으로부터의 보다 철저한 분립을 보여준다.

		개신교 교회		
16세기	재세례파	개혁주의	루터교	성공회
17세기	퀘이커	청교도		
18세기		감리교		
19세기	자유교회			
20세기	순복음			

교회는 서방 교회(로마 가톨릭)가 동방 교회(정교회)로부터 분리된 11세기까지는 연합되어 있었다. 16세기에는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불어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신자들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개신교 종교개혁 시기에 다시 네 개의 주요 줄기인 재세례파, 개혁주의, 루터교, 그리고 성공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네 개의 줄기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배치된 위치와 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왼편으로 갈수록 로마 가톨릭과의 단절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예배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형식을 견어낸 교파(왼편)부터 좀 더 형식을 따르는 교파(오른편) 순으로 되어 있으며, 성례에 대해서는 성례가 예배에서 덜 중요한 교회로부터 더 중심적인 교회의 순이다.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는 보다 덜 계급적인 교파로부터 좀 더 계급적인 교파로 배치됨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교파 중에서 개혁주의의 관점은 이들의 가운데쯤 어딘가 위치한다.

그런데 개혁교회 성도들은 북미주 개신교의 계보에서 그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때, CRC의 개혁주의의 관점도 오늘날의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어쨌든 개혁주의의 기독교인은 초자연주의 면에서는 과감하게 근본주의와 그 믿음을 함께 하는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문화 참여 면에서는 자유주의와 보조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을 계승한 CRC는 양극화된 북미 교회의 상황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개혁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자유주의자로 불리기 원치 않는다. 자유주의는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한 견해가 부적절하고, 반 초자연주의, 개인의 죄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 위한 회개와 믿음의 필요성을 덜 강조하기 때문이다. 한편, 개혁교회 성도는 근본주의자로 간주되는 것도 사양한다. 근본주의는 반 지성주의, 창조 교리의 풍성함을 놓치고 과학과 학문에 의심, 문화에 대한 참여 부족, 지금 이 세상보다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 강조,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세대주의적인 역사 이해 경향을 갖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개혁주의의 관점은 자유주의나 근본주의와도 완전히 구별되는 제 3의 입장을 취하며, 그 자신을 북미의 상화에서 이해하지 않는다. 개혁교회는 자유주의자나 근본주의자나 논쟁에서 어느 진영에 속하기 보다는 스스로를 ‘고백교회’로 생각한다. 즉 자기 정체성을 찾을 때, 칼빈 (John Calvin) 및 종교개혁자 그리고 어거스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학전통을 따라 역사적으로 자리를 매긴다.

북미 계보에서 개혁교회의 줄기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법은 복음주의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그런데 복음주의 (evangelical)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른 뜻으로 이해한다. 북미에 800만이 있는 복음주의적 루터교인이 이 말을 하면 그들은 정통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주류에 속한 역사적 개신교파이면서 복음주의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 둘 사이에 아무런 긴장을 느끼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복음주의와 근본주의 두 단어를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실은 전혀 다른 말이다.

복음주의란 말은 그들 자신을 근본주의와 구별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데, 종종 개혁교회 신자들도 그들 자신을 근본주의와 구별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종종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에 많이 중복되는 부분을 본다.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는 풀러 신학교, 고든 콘웰 신학교, 휘튼 대학교, 크리스챤리티 투데이, 기독교대학생회 같은 기관들과 존 스토틀, J. I. 패커, 척 콜슨 등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교리나 소속이 개혁교회와 같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신학적으로 개혁주의적이라고 여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개혁주의의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마땅히)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부르고 있다.

개혁주의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

개혁주의 전통을 관찰한 사람들은 북미의 문화적 환경에서 번성한 개혁주의가 지닌 세 가지의 주된 “강조점” 또는 “정신”을 언급해왔다.

그 첫번째 강조점 또는 정신은 교리주의자의 정신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개혁주의는 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교회의 고백에 반영된, 기독교의 가르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교리주의자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질문하며,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개혁주의 교리를 자세히 요약한 “조직신학”의 저자인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에게 감사한다.

두 번째는 경건주의자의 정신이다. 여기에서 개혁주의란 신자의 삶이며 하나님과 갖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경건주의자는 ‘매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는가?’ 묻는다. 이들은 1834년 신학적, 영적 활력을 잃어버린 네덜란드 국가 교회로부터 분리(Afscheiding)를 주도한 헨드릭 드 콕(Hendrik de Cock) 목사를 높이 평가한다.

세 번째는 변혁주의자의 정신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개혁주의는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 기독교세계관, 그리고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를 뜻한다. 변혁주의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세상과 연결시킬까?’를 물으며, 목회자, 학자, 그리고 네덜란드의 수상으로서 기독교 문화 발전을 강조하고 북미 CRC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1880년대의 애통 운동(Doleantie movement)을 주도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를 특별히 인정한다.

물론 이 세 가지 강조점 또는 정신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들 사이를 분명하고 성급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은 그 역사적으로 개념적으로 서로 분명히 다른 세 개의 접근방법을 대표하며, 앞으로 다룰 개혁주의의 특성을 요약한 16가지 핵심 용어의 근거가 된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교리주의자의 강조점)

1. 성경 (딤후 3:16)

개혁주의 신자들은 성경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들은 성경이 영감되었으며, 무오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아래의 두 성경구절은 성경의 본질과 권위를 보여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27)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벧후 1:20-21)

영감된 (inspired), **무오한** (infallible), **권위 있는** (authoritative) 이 세 단어는 개혁주의 신자들이 성경에 대한 견해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다. “영감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근원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즉 성령에 의하여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무오하다”는 것은 성경이 참되며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절대 틀림이 없어서, 그 가르치는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위가 있다”는 말은 신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요구를 가리킨다.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살며 이에 순종해야 한다.

종교개혁 시기에 개혁주의 신자들은 성경, 전통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공식적인 교회의 선언이 모두 동일하게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구별하여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를 주장했다. 로마 교회의 주장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성경만이 믿음과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권위를 갖는다고 응답했던 것이다.

오늘날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이러한 견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을 성경의 권위만큼 높이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권위를 끌어내려 성경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못하고, 부활 같은 것은 신화에 불과하므로 성경은 우리 삶에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단언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신자들은 설령 현대의

“계몽된”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들은 성경이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또 다른 하나의 위협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계시관이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계시하셨다고 간증한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인정하지만, 동시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고 주장한다. 전 칼빈 신학교 헨리 스톱(Henry Stob)이 “성령은 언제나 성경의 등을 타고 다닌다”라고 명확히 말했듯이, 또 버나드 끌레보(Bernard of Clairvaux)가 “성경은 성령의 공간이다”라고 했듯이 말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된다. 우리들은 때때로 성경의 본질과 권위에 대한 논쟁에 너무 빠져들어서 성경 자체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간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성경은 풀어야 할 문제들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다. 성경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이야기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이야기의 절정은 그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은 “구원의 계시”에 있다는 말의 본뜻이다.

2. 창조-타락-구원 (골 1:15-20)

개혁주의가 성경과 그 메시지를 정리하고 또한 역사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이 창조-타락-구원이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세상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고 또한 구원하고 계신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날에 완성된다는 내용이다.

목사와 장로들은 청소년들이 입교식으로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러 나올 때 기뻐한다. 입교준비 면접에선 대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 때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는 대답을 좋아한다. 개혁교회 목사와 장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후에 세상이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라고 대답하면 더욱 기뻐한다. 이와 같이 창조-타락-구원은 개혁주의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며, 역사와 성경 이야기의 줄거리다.

창조 교리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후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성경 가르침의 중요성은 꼭 언급해야겠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창 1:26-27)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26절) 서로 사랑하는 교제 속에 살라는 명령을 행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게 될수록 자신에 대하여 더 알게 되며, 그들 자신에 대하여 더 알게 될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진리는 낙태, 성, 결혼, 학대, 사형, 전쟁, 인종, 그리고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교회가 취하는 윤리적 입장 거의 모두에 적용된다.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류가 창조되었다는 창조 교리보다 교회의 윤리적 진술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성경 교리는 많지 않다. 우리는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 139:14)

3. 은혜 (엡 2:8-10)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말한다. 은혜는 그것을 얻을 만한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선물로서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이며 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는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들이 결국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은혜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다 더 사랑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놀라운 진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역사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은 은혜에 관하여 말할 때 그것이 인간의 성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강조해왔다. 이는 실로 바울이 말한 것과 같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8-10)

“칼빈주의 5대 강령”은 하나님 은혜의 성질을 철저히 강조하는 개혁주의의 교리를 가리킨다. 이는 종종 각 단어의 앞 문자를 따서 TULIP (완전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으로 요약되곤 한다. 그런데 이 “TULIP”는 종종 인간의 실패에 초점을 맞춘다고 오해받는다. 그러나 사실 그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며,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풍성한 교훈들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 모든 인간과 인간 존재의 모든 부분은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어졌다. 바울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엡 2:1)다고 말한다. 타락한 상태에서의 인간은 단순히 악하고, 병들고, 또는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것만이 아니다. 인간은 죽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할 상태가 된 것이다.
- **무조건적 은혜 (Unconditional Grace)** : 하나님은 그의 긍휼 가운데 출생하기도 전에, 그리고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신자들을 선택하여 사랑 가운데 그 자신에게로 부르셨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4-5). 누가 하나님을 믿을 지 미리 아는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자녀들을 선택하셨다.
-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하여,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29-30)

-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인 요소이다. 신자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고, (요 3:5) 또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요 6:44) 물론 믿음은 인간의 행위이며 결정이다. 그러나 심지어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신자를 그의 손에 안전하게 붙드시며, 누구라도 또는 어느 것도 신자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내지 못하게 하신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10:27-28).

신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붙들려 있다. 신자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자들을 붙잡고 계시다. 이 사실은 신자의 영원한 안전함, 즉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려져 왔다.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했듯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39절)

칼빈주의자들은 그들의 구원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를 깨닫고는 말을 잃는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찬송가의 가사대로 우리는 그저 “빈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

4. 언약 (렘 31:31-34)

언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갖는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풍성한 성경적 개념 중의 하나이다. 언약이란 약속과 책임을 반드시 동반하는 양 편 사이에 맺은 공동의 협약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특별히 구약성경이 거듭해서 하나님을 그의 백성을 향한 약속과 책임, 언약에 묶어두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어떤 것도 약속하실 필요가 없지만, 거듭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는 위대한 언약에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성경은 이 동일한 은혜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여 있다. 다른 교회에서보다 개혁신교에서 구약설교를 더 많이 듣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개혁신주의 설교자는 구약이 신약을 거스른다고 보지 않고,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은혜 언약을 계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의 약속에까지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약속과 헌신으로써 그 자신을 그의 백성에게 묶어 놓는 언약의 개념은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를 풍성케 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맹세를 새롭게 한다. 설교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선포하고 베푼다. 성찬은 새 언약의 표식이다. 세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교우들은 하나님과 서로에게 약속을 한다.

이런 약속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는 교회 즉 성례적 공동체와의 깊은 헌신의 관계를 만든다. 누가 교회에 참여한다면, 그는 그저 자기 이름을 한 단체의 회원명부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자들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교회 회원의 자격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교회를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한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은 교회 차원에서 맺은 풍성한 언약적 연결의 고리와 헌신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므로 매우 중대한 일이다.

또한 언약은 현대 개인주의 문화 속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전략적인 강조점이 된다. 사회가 필사적으로 시대의 도덕과 특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내려고 애쓸 때, 신자들은 이미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일의 핵심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언약적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 속에서 언약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5. 일반은총 (마 5:43-48)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는 달리 하나님의 일반은총(common grace)은 인류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미치는 하나님의 호의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일반은총에 대한 세가지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 하나님은 신자들은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자연적인 은사를 주셨다. 훌륭한 피아니스트, 변호사 또는 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죄를 억제하고 계시다. 죄 때문에, 인간은 아주 선하지 못하다. 그러나 또한 일반은총 덕분에, 그렇게까지 악하지도 않다. 이것이 바로 어떤 때는 불신자가 신자보다도 더 낮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어떤 사람에도 인내, 용기, 동정심 등의 미덕의 영향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다. 셋째, 하나님은 불신자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유익이 되는 긍정적 행동을 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회가 질서 있게 기능하도록 기본적인 사회정의에 대한 의식을 보존하신다. 일반은총은 죄와 악으로 상처입고 왜곡된 사회가 완전히 해체되는 것을 방지한다.

일반은총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봉사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의미를 준다. 하나님의 일반은총은 신자들이 교회 안의 신자들을 향해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실천해야 하는 은혜의 모형이다. 일반은총은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공동의 목적을 추구할 때 그들과 긍정적인 접촉점을 발전시키도록 격려한다. 기독교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은총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가 만든 영화나 소설, 또는 예술 작품들을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 누리고, 때로는 초월의 세계 또는 은혜에 대한 암시로까지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이유이다. 일반은총은 신자들로 하여금 아브라함 카이퍼가 “대립관계” 라고 불렀던 이 세대의 갈등이 신자와 불신자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는 것임을 상기시켜 준다. 이 싸움은 두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과 사회 속에 거하며 영향을 끼치는 두 영적 권세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일반은총의 가르침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다양한 사역을 펼쳐갈 것을 요구한다. 집사의 음식 배급 사역, 원목의 병원 사역, 목회자의 결혼 상담 등은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일부이며, 심지어 사역의 수혜자들이 신자가 아니어도

좋고 앞으로 신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지만,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명 아래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펼친다. 그리고 교회는 한 사역을 다른 사역의 가치 아래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이러한 모든 사역들은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명 안에서 그 자체로서 고귀함과 목적을 갖는다.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경건주의자의 강조점)

이쯤에서 개혁주의에 관한 교리주의자와 경건주의자, 그리고 변혁주의자로서의 세 가지 접근방법이 서로 중복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즉 신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세 가지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 세 가지 접근방법은 CRC 뿐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교회 안에도 있는 서로 다른 강조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 (롬 8:38-39)

개혁주의 성도가 임종할 때, 목회자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신앙의 핵심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종종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번째 문답, 즉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과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사용한다. 이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39절)

종종 개혁주의 전통은 “머리,” 즉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가슴,” 즉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CRC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사랑을 받는 신앙고백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매우 목회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의 진술이다. 그러나 교리문답을 변호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회복시키는 이야기라는 점이다.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이나 신앙의 전통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개방해서 자유롭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CRC는 모교회인 네델란드 개혁주의 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이 되고 이런 “가슴에 관한 언급”을 주저하던 국가교회로부터 독립하면서 시작하였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만나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꺼린다. 이에 대해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보다 더 크고 포괄적으로 보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연합 그 이하로 보지도 않는다.

개혁주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으로 한정하여 신자의 삶의 폭을 지나치게 좁히는 미국 복음주의의 경향에 우려한다. 신자의 삶은 내적인 사랑, 즉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를 향하여 갖는 나의 감정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의 내적 상태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에 대한 최선의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내적 행복과 자기만족을 추구하며 치유를 중시하는 풍조 속에서, 개혁주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라는 말이, 동일하게 중요하며 동시에 더 포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다른 노력들까지 덮어버릴까 염려한다.

2. 성령 (롬 8:1-17)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세 인격 중 하나이다. 성경을 믿는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 인격 모두의 사역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받아들인다. 더욱이 신자는 창조하신 성부의 사역, 구속하신 성자의 사역, 성화시키는 성령의 사역 등 삼위 하나님 각자의 사역을 강조할 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교제,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 및 성령의 거룩한 공동체로 계시하시는 방식을 또한 강조한다. 즉 하나님 자신의 삶과 삼위의 교제 안에서 신자들은, 창조와 구원의 목적인, 참 교제와 자기를 내어 주는 사랑의 모범을 발견하게 된다.

이 삼위의 교제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의 생활 및 증거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의 사역은 포괄적이다, 성령은 영적인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신자를 새롭게 하며, 신자에게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을 주시며, 교회의 사역을 위해 은사를 내리신다.

칼빈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모두 성령과 관련된 풍성하고도 생생한 신학을 제공한다. (어떤 19세기의 신학자는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렀다) 개혁주의의 고백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성령의 사역들을 강조한다.

- 성령은 신자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과 영적인 새 생명을 주신다.
- 성령은 신자에게 영생을 확신시키신다.
- 성령은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새롭게 하신다. (성화의 사역)
-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는 신자를 교회로 모으신다.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세우신다.

- 성령은 성례 가운데 활발히 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연합시키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세례와 성찬 중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게 하신다. 실로 신자의 예배는 오직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성령을 어떤 특별한 경건 또는 특별하고 특이한 성령의 은사(신유, 방언, 예언 등)에만 연관시키려 한다. 그러나 성령에 관한 앞의 가르침은 성령의 사역이 포괄적이라는 사실, 즉 신자의 삶, 교회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등 모든 방면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여기서 신자의 삶에서 갖는 기도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의하면, 기도는 감사하는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신자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의 선물과 성령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한다. (문답 116) 그런데 성령은 신자의 기도의 주체이며 또한 대상이다. 성령은 신자가 기도를 하도록 힘을 주시며, 또한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성령에 대한 풍성하고 생생한 이해는 풍성하고 생생한 기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과 함께 온다.

마지막으로, 성령과의 풍성하고 생생한 만남은 신자의 예배와 절대 구분될 수 없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하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성례 및 설교 중에 실제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혁주의의 이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예배의 갱신은 어떤 것이든 성령의 사역이다.

3. 감사 (골 3:15-17)

신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신자의 동기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가 모든 것을 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등이다.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이자 개혁주의의 강조점, 죄책감, 공포, 율법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감사이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감사합니다!”라는 한 가지 반응으로부터 나온다.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새로운 삶을 설명해나가면서 바울은 감사를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 3:15-17)

그런데 모든 신자의 태도와 행동의 동기로서 감사를 강조하는 신자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해 외형적인 일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에 유혹될 수 있으니 이상한 일이다. 율법주의는 신자를 그리스도로부터 단절시키기 때문이다. 율법주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종교생활이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골몰하게 한다. 율법주의적 정신은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심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율법주의는 종종 CRC의 경건주의를 오염시켜왔으며, 이는 왜곡이자 실패며, 돌이킬 죄며 할 죄이자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거스르는 일임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순종은 감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십계명 문답이 있는 자리다. 교리문답의 세 부분, 즉 우리의 죄 (Guilt), 하나님의 은혜 (Grace), 우리의 감사 (Gratitude) 중에서 십계명은 감사의 부분에 배치되었다. 신자는 그들의 죄책을 없애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죄책을 없애고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한다. 순종은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에 대하여 신자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순종과 감사를 연결시키는 것은 순종이 덜 중요하다거나,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감사하게 느낄 때에만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의무, 훈련, 소명, 그리고 책임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이다. 그러나 죄책, 두려움, 그리고 율리주의는 신자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순종은 결국 감사의 깊은 우물 즉,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야만 하는 것이다.

4. 교회 (에베소서 4:1-6)

개혁주의 사람들이 신자의 삶을 말할 때, 아마 그들은 교회에 관하여 말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개혁주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임을 강하게 주장한다. 많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아무 연관을 갖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많은 북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은 신자의 삶의 지경을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내적 애정과 감정만으로 부당하게 좁히는 것이다. 이러한 편협한 초점은 지나치게 자기 지향적이고 주관적이며, 그리고 흔히 교회와 연관이 없게 되고 만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와 성령의 내적 임재가 신자의 경험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및 성령과의 관계는 신자들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모으셨고 또 지금도 모으고 계신 그의 자녀들 안에서 구체화 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계획 중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교회는 결코 그 자체를 위해서나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믿음과 훈련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베드로는 교회의 정체성을 그 목적과 명확하게 연결시킨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교회가 그 자신의 보전 이상의 것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사명에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그 자신을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 16:25)는 말씀은 개인은 물론 교회에게도 적용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교 목적에 헌신하는 교회는 결국 그 자신의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회를 통해 신자들이 모든 역사와 민족 가운데 전 세계의 교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됨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가 공동체로서 인종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과 화해했다는 말이다. 정의와 화해의 사역은 교회가 임의로 고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근본적인 표식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엡 2:14-18)

오늘날 북미의 그리스도인은 세계 교회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한다. “역사 가운데의 교회나 전 세계의 교회에 신경을 쓸 필요가 무엇인가?”라고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1980년대 남가주 또는 19세기의 미시간 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다. 각 교회는 그 자체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교회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대항하여 기독교인들에게 더 필요한 해결책은 개인적 성화를 내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을 줄이고, 그 대신 모든 세계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서 신자들이 가졌던 교회 공통적인 순종과 관례에 자신을 더 많이 연결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세계교회와의 연대와 전통에 대한 인정이 교회 안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금한다는 말은 아니다. 중요한 개혁주의 원리는 “개혁주의 교회는 언제나 개혁해야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 그 자체도 교회를 철저하게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개혁하고 새로워지며, 죽고 부활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살아있는 유기체인 교회는 말 그대로 언제까지나 성장하며 변화한다.

5. 말씀과 성례 (롬 10:14-15, 마 28:16-20, 고전 11:23-26)

공적인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주요 방편이다. 개혁주의 신자에게 기독교 예배의 핵심은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이다. CRC의 목사들은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로 안수받는다.

개혁주의 신자는 설교를 중시한다. 설교는 단지 설교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강의가 아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성경 낭독과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공적예배의 상황에서 설교의 계시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정황에서, 전통적 개혁주의 예배에서 성례 때만이 아니라 말씀의 낭독과 설교할 때에도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시된다.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예배 갱신이 전 세계와 CRC안에서 일어남에 따라서 성례, 즉 성찬과 세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성례에 관해서 말할 때 개혁주의 신자가 강조하는 두 가지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개혁주의 기독교인은 각 성례와 연관된 모든 성경적 주제들을 인식하고 성례를 집행하기 원한다. 보석이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면과 각을 가지듯, 성경에서 이들 성례는 여러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세례는 제자도에로의 부름 (마 29:19), 구원의 선물 (막 16:16), 성령을 받음 (눅 3:16, 행 8:16, 10:44-47), 중생 (요 3:3), 죄 사함과 씻음 (행 2:38, 22:12),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 (롬 6:4, 골 2:8), 교회에 들어옴 (고전 12:13), 그리스도로 옷입음 (갈 3:27), 그리고 몸의 연합 (엡 4:5)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성찬 또한 언약의 갱신 (출 24:8), 감사, 죄사함, 하늘 잔치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 (마 26:26-29), 속죄함 (막 14:12), 영적인 공급 (요 6:35), 그리스도를 기념 (고전 11:24) 및 선포 (고전 11:26) 등 많은 성경적인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개혁주의 전통은 성례에 대한 이러한 모든 성경적인 관점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성례에 관한 개혁주의의 두 번째 강조점은 성례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각 성례는 하나님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성례에서 하나님의 행위, 즉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가운데 약속하고, 선포하고, 먹이고, 보존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가르치고, 확신 시키는 측면을 강조한다.

달리 말하자면 성례는 예배 중의 의식 그 이상의 것이다.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를 그에게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축제다. 이 성례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방편이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수많은 새로운 형태의 영적인 것을 만들어 내면서 신비와 초월의 세계에 대하여 목말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예배에서 더 큰 경외감과 초월적인 체험을 기대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실제적이고 권세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한다. 이러한 세상에서 개혁주의 기독교인의 예배전통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독교 예배 중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갖는 위대한 만남을 강조하는 말씀과 성례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가? (변혁주의자의 강조점)

이 강조점으로 보면, 개혁주의란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 세계관과 관련한 어떤 관점을 가리킨다. 그리고 개혁주의자의 질문은 “어떻게 신자들이 그들 주위의 문화와 연관을 맺을 것인가? 좀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교회가 문화와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그 주위의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흔히 교회가 빠지기 쉬운 고립주의를 피할 것인가?” 등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아래 여섯 단어 혹은 구절이 이 관점에서 개혁주의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1.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빌 2:11)

물론 이 말은 성경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찬양의 노래를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10-11) 개혁주의 신자들이 이를 설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사 52:7)

예수가 주라는 선언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는 파괴적인 이원론에 물든 현대 세계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오늘날 북미에서 세속적인 세계관은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신자들로 하여금 세계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두가지로 완전히 나뉘어 있다고 믿게 한다. 물론 신자들이 그들의 작은 거룩한 세계에서 그들의 작은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허용한다. 그러나 소위 “거룩한” 그들만의 작은 세계에만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이렇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별에 대한 대화를 접할 때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8)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엡 1:20-21)는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한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지도 아래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거룩과 세속에 대한 이원론을 강력하게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이심을 선포한다. 만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제 1문과 그 대답이라면 (즉 “삶과 죽음에서 무엇이 당신의 유일한 위로인가? 내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을 부분은 단 한 치도 없다”라는 말이다.

2. 하나님의 나라 (마 6:10)

모든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 및 개혁주의의 강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14-15)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많은 비유를 가르쳤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스리셨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통치가 단번에 확실히 밝히 드러났다. (골 1:15-20, 엡 1:15-23)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및 미래의 현실이다. 이것은 “이미 지금” (already) 있으면서 또한 “아직 오지 않은” (not yet)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강조했으며, 그러면서도 또한 앞으로 올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 지금” 이라는 개념의 열매를 CRC 전반에 걸친 사역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래의 표는 이러한 노력들의 작은 예이다.

-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기독교 대학과 기독교 학교들
-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시카고의 엘림 기독교 학교
- 토론토의 사회 정의를 위한 시민 단체 (Citizens for Public Justice)
- 미시시피 주 잭슨 시 근교의 지역 개발 단체인 캐리 기독교 센터
- 온타리오의 상담 및 입양 안내소 설립
-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의 파인 레스트 기독교 병원

이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력이다. 이 기관들의 사역범위는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보다 크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 통치의 열매다. 그리스도께서 가져다주시신 새로운 평화, 정의, 그리고 치유하는 법의 일부이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패배정도가 아니라 소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리고 눈물이나 상처 또는 죽음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헌신이다. 많은 성경 구절이 신자들이 하여금 정의를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가의 요청만큼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없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막 6:8)

개혁주의 기독교인이 폭 넓은 사회참여를 강력하게 추진하려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에서 나온다. 그리고 정의는 신자들이 이러한 폭 넓은 분야에서 일하며 추구하는 것이다.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독교인들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자들이 사는 지역사회 내의 사람들과 그들이 갖는 개인적인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정의는 신자들이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를 추구하는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인종 차별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법과 관습에 반대하여 싸우는 일
- 사법기관에서 형벌과 교정, 그리고 회복 간에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일
- 인간의 고통, 가난, 및 기아를 덜어주고 사회의 약자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정책을 추구하는 일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즉 성경적 개념으로서의 정의와 복미의 정치적인 담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의라는 개념은 종종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복미 사회에서의 정의는 개인의 권리, 누가 권리를 갖는지, 얼마나 갖는지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개개인의 높은 지위에 근거를 둔 개인적 권리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의로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 관계의 회복, 의와 평화로 이끄는 잘못된 교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 및 정의와 평화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3. 말씀과 행위 (약 2:14-17)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약 2:14-17)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듯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또한 우리를 교회에 맡겨진 “말씀과 행위”라는 사명의 본질로 인도한다. 교회의 사명은 말씀에 해당되는 측면(말씀의 선포)과, 행위의 측면(행동)을 가지고 있다.

-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선포하며, 또한 복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도한다.
-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면서, 또한 난민들이 정착하는 것을 돕는다.
- 교회는 신자들의 몸을 이루어 나가면서, 또한 사회 정의를 도모한다.
- 교회에는 장로뿐 아니라, 또한 집사도 있다.

말과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사역에서 함께 간다. 교회는 말씀과 행위의 사역을 구분할 수 없으며, 결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4. 문화 명령

문화 명령은 카이퍼 계통의 개혁주의 집단에서 자주 듣는 단어이다. 이 문화 명령은 구체적으로 창세기 1:27-28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명령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들의 직무에 대한 설명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지을 능력을 포함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를 주셨는데, 그것은 명백하게 창조하는 능력인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시 8:5-6)

이 말은 인간이 모든 것을 주장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또한 사람이 피조물을 지배하고 유린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실은 오히려 정반대다. 즉 인간은 청지기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한 세상을 최대한 좋게 만들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건설자요, 설계자요, 창조자다!

따라서 문화명령은 창조를 매우 강조한다. 그리고 강력한 창조 교리와 문화 명령으로부터 나오는 것 중의 하나는 과학에 대한 인정이다.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자들처럼 과학 (또는 나머지 학문에)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두 책, 즉 성경과 자연의 책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후자에 관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 19:1) 과학은 자연의 책을 “읽으려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과학의 책이 성경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개혁주의 신자는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 읽었는가를 살피기 위하여 두 책을 거듭해서 읽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둘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이 두 책은 모순될 수가 없는 것이다.

문화 명령과 그리고 이 명령이 강조하는 창조교리가 제기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책임은 환경의 청지기직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다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 (시 24:1) 는 말씀을 따라서 신자들은 땅과 환경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은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이며,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의 청지기, 보호자, 돌보는 자로 임명하셨다.

5. 기독교 교육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 9:10)

개혁교회 신자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육을 매우 강조한다. 역사적으로 특별히 CRC는 집에서나 교회만이 아니라 교육 기관, 즉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강조해왔다. 그리스도는 모든 학문 영역을 포함하여 삶 전체의 주인이시므로, 모든 교육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믿음과 학문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교육단계에서도 하나님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삶과 학문의 모든 영역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려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성경의 명령은 아마도 골로새서 1:15-17에서 가장 명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을 것이다:

“그(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므로 개혁교회 신자에 의하여 시작된 기독교 학교들은 “학문은 그리스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긍정적인 비전 위에 세워진다. 동시에 그들은 공립학교 교육을 반대하지 않는다. 시민으로서의 개혁교회 신자들은 보통 지역사회의 공립학교 교육체제를 열심히 후원하며, 또한 그들은 기독교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를 위한 세금부과에 찬성표를 던진다. 그리고 많은 CRC 교회들에는 기독교 학교 및 공립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출석한다. 간혹 기독교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 가족을 주변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시켜 오긴 했지만, 이러한 고립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며, 사실은 적극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일반은총을 따라 심지어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개혁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모든 사람들의 복지에도 큰 관심을 가진다.

6. 신자의 소명 (엡 4:1)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엡 4:1) 주일이나 교회생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즉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신자는 시간, 일, 재능, 창조력, 돈, 여가 등 그들 삶의 모든 부분을 감사와 순종의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칼빈주의라는 말을 듣는 즉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그리고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갖는 “칼빈주의의 직업윤리”를 연상한다. 이러한 직업윤리는, 직업, 경력, 혹은 소명으로 부르거나, 많은 능력이 필요한 일인지 혹은 단순작업이든지, 보수가 많든지 혹은 없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이 직업윤리는 인간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며,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을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칼빈주의의 확신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일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인 이해는 사업, 전문직, 노동, 가사, 지역사회의 단체, 사회 단체, 교육, 과학, 산업, 농사, 그리고 정부기관 등에서 건강하고 의식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의 소명에 대한 강조는, 철학부터 물리학, 생물학부터 경영학까지 아우르는 모든 학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는 CRC가 기독교 인문 대학을 특별히 아끼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건전한 기독교 소명관은 또한 강한 청지기의 의식,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재능, 자원 및 부를 지혜롭게 사용하려는 결단을 이끌어 낸다.

맺는 말

우리는 앞에서 세 가지 강조점, 즉 교리주의자, 경건주의자, 그리고 변혁주의자의 강조점이 CRC 내에서 특별한 방식 또는 정신으로서 기능해왔음을 살펴보았다. 균형 잡힌 신자의 삶과 신학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잘 융합되고 강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리주의자의 강조점만으로는 배타성과 게으름으로 빠질 수 있다. 경건주의자의 강조점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주의에 빠져 기독교의 폭 넓은 차원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변혁주의자의 강조점만으로는 기독교와 악과의 대립관계를 간과하는 지나친 포용을 불러올 수 있다. 또 각 강조점은 그 하나만을 강조할 때 자만심으로 다른 두 개의 강조점을 무참히 격하시키게 될 우려도 있다. 건강한 사역을 위한 한 가지 열쇠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건전하고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정체성 선언문이 설명적인 것인가 또는 규범적인가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이 정체성 선언이 CRC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CRC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양쪽 모두이다. 이 정체성 선언은 개혁주의 신앙의 최선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자, 또한 보다 더 완전하게 이러한 성경적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열정적인 요청으로 보아야 한다.

바울이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영)을 주사 그리스도를 알게” (엡 1:17) 하시기 바란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 3:20-21)



Christian
Reformed
Church

crcna.org

150762